

저출산과 프랑스 영유아교육·보육 협력 사례 연구

조 희 연*

초 록

프랑스는 일찍부터 공교육체제의 보편적 조기교육제도가 잘 발달되었다.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온 프랑스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연령별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적합한 방식으로 협력을 이루어 통합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부분 통합 정책들을 통해 일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의 기능적 통합 사례와 협력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1997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확립방안 발표와 2011년 '5세 누리 과정' 도입 이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의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주제어 : 저출산, 프랑스 보육-유아교육 협력, 공교육, 공보육

I. 서론

OECD가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¹⁾은 1.15명으로 2004년 이후 6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OECD, 2011a).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자들이 보는 대체출산율 2.1명²⁾에 크게 못 미친다. 1970년의 출산율인 4.53명과 비교했을 때, 3.34명

*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frjhy@hycu.ac.kr)

1)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

2) 대체출산율은 한 사회의 인구가 줄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을 뜻한다. 사망률 등을 감안하면 남녀 한 쌍이 결혼해 아이를 평균 2.1명 낳아야 인구가

이나 하락한 수치이며 2009년 OECD 평균 출산율인 1.78명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OECD, 2011a).

한국과 비슷한 초저출산율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 1980년부터 출산율이 계속 하락해 1994년에는 1.66까지 낮아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08년 2.02명, 2010년 1.99명으로 여전히 유럽국가들 중 선두를 지키고 있다(Insee; TF1, 2010).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가족정책을 위해 가장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가족정책에 지출하는 경비(8백30억 유로)는 GDP의 5%에 해당한다(L'Express, 2009). 가족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서비스, 자녀 교육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이 가족정책으로 쓰는 재정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2.1%)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이 높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10배 이상 가족정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OECD, 2011b; 프레시안, 2009).

프랑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출산장려 정책을 펴왔으며 특히 가족지원정책과 유아교육, 보육 정책을 통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에서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여건이 오랜 전통으로 굳어졌다.

'OECD 국가의 유아학교체제와 만3~5세 연령별 취원율표'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노르딕국가들이 유아교육에 집중 투자한 뒤부터 낮은 출산율이 급상승한 반면 유아교육 투자를 소홀히 한 채 보육 수준에 머문 독일 등 대륙형 국가들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09).

프랑스의 경우 중앙집권적 공교육체제로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은 연령별로 이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만 3세 미만의 유아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 보육모를 고용하고, 만 3세 이상의 취학 전 유아들에게는 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프랑스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

출지 않는다.

만 무상교육 체제의 확립으로 100%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만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프랑스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률은 10%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DRESS, 2007). 이에 부족한 보육시설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제도와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즉 유아교육기관의 보육기능 부가 형태와 시설보육기관에 교육기능 부가 형태와 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적 통합 서비스를 갖춘 시설의 증가는 다양한 육아지원정책과 더불어 출산율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프랑스처럼 보육과 유아교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연령별 이원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상의 중복으로 인한 공교육 및 공보육 체제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육 산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양적 팽창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시설보다 영세화되기 쉬운 민간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났으며 보육아동은 2009년 기준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이 11.0%이고 법인 및 법인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14.1%인데 비하여, 민간개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과 같이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73.2%로 매우 높은 편이다(송승민, 2006, p.4; 서문희, 2011, p.7).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지불해야하는 높은 보육 및 교육비용은 개인이 출산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며, 보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높은 경우 출산시기를 조절하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특히 사교육비는 전 소득계층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수준 향상으로 대학졸업과 취업 전까지 모든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므로 저출산의 문제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남윤인순, 2006, p.9).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시도가 세계적인 추세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노르딕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서비스가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OECD(2001)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된 개념과 정부의 체계적 접근만이 두 분야의 분리로 인한 중복과 갈등 및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2003년 유아교육·보육 주제 검토 사업 후 우리나라 정부에 제안한

권고안을 통해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나정 외, 2004, p. 28).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행. 재정적 효율성, 서비스 수준의 제고,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신나리. 김은설, 2006, p.36) 측면에서 큰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보육과 유아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관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프랑스 가족지원정책 및 영아보육체제에 대한 다수의 연구(서문희 외, 2004; 송승민, 2006; 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정재각, 2004; 조정신, 황성원, 2004; 홍승아, 2005; 한지혜, 2003)가 진행되었으나 유아교육. 보육 협력 및 통합 사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령별 이원화된 구조를 지니며 이에 따른 유보 통합의 핵심은 유아교육기관의 보육기능 확대와 시설보육기관의 교육기능 확대로 상호 보완적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 서비스와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가 점차 유사해지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도적 이원화가 중복운영이라는 정책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시행될 '5세 누리과정'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로 취학 전 유아교육. 보육. 초등교육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초등교육을 좀 더 충실히 받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을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서 만 5세 전체 가정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교육. 보육비 지원 금액을 연차적으로 늘려 유아교육비의 공공부담을 확충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실천적 의미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서문희. 장명림. 문무경. 양미선, 2011).

유보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 및 통합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육아정책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세부적 실천 전략으로 기관 통합, 교사 통합, 교육. 보육 과정 통합, 교육. 보육 서비스관리. 감독 체계, 예산의 통합적 지원방안, 통합

모형에 대한 연구(문무경 외, 2007; 유희정 외, 2008; 이옥 외, 2006)가 진행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국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협력 관련 정책 연구의 검토와 OECD와 UNESCO 자료를 중심으로 국외 서비스 협력 및 통합 사례조사를 하였다(문무경 외, 2007). 2006년 수행한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연구(이옥 외, 2006)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 모형을 검토하여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 기능별 일원화 후 통합, 과제별 조정 후 부처통합, 단기부처 통합-교육인적자원부 총괄, 단기부처 통합-여성가족부의 한시적 총괄 등 다섯 유형의 통합 모형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부처통합 목표를 지향하되, 현행 이원화 체제의 주요 갈등 유발 요인의 해소 또는 완화 방안을 중시하고,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2008년 진행된 유보 협력 방안 연구(유희정 외, 2008)에서는 국내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사례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사례, 둘째, 대학 부설 기관 협력 사례, 셋째, 개인 동일기관장에 의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사례, 넷째,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협력사례이다. 연구결과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협력유형을 ‘기능부가형’, ‘제휴형’, ‘연합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중장기적 통합을 모색하고자 세부적인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밖의 외국 사례에 대한 소개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연령중복 이원화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일본, 캐나다의 사례, 연령별 일원화체제의 홍콩과 네덜란드의 서비스 협력 사례(문무경 외, 2007; 신나리 외, 2006)와 스웨덴의 유보통합 시설인 유아학교의 발전과정(박창현 외, 2010)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일본, 중국(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프랑스 유보 협력 사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프랑스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령별로 이원화된 체제가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상황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프랑스의 유아교육과 보육 제도에 대한 연구는 공교육과 공보육, 공교육 체제로의 학제개편, 육아지원 정책의 관점에서 많이 다루어져왔고 한국 유아교육, 보육 정책에 많은 교육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무부처간의 연계와 합동현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과 보육의 협력으로부터 생성된 유보 협력³⁾과 기능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유보 협력 및 통합의 사례와 최근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유보 통합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프랑스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1. 프랑스 보육 및 유아교육 현황

프랑스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중앙집권적 공교육체제를 지향해왔으며 종교와 인종의 구분 없이 평등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일찍부터 아동의 보편적 조기교육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만 3세부터 다닐 수 있는 유아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취학률이 100%이다(DEPP, 2006). 프랑스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취업부모를 지원하는 것과 모든 아동에게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Fagani, 2003, p.3).

프랑스 보육 및 교육의 큰 특성은 연령별로 유아원(crèche)과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로 이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보육적 접근으로 교육보다는 주로 신체적, 정신적 보호와 유아학교에서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지적 ‘발달 깨우기’(éveil)의

3) 기관이나 시설 간의 ‘협력’(cooperation)은 흔히 ‘조정’(coordination), ‘통합’(integration)의 용어와 뚜렷한 구분 없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문무경 외, 2007) 본 논문에서는 통합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 즉 완전한 서비스 통합에 비해 서비스 융화 수준, 범위, 강도가 낮은 상태이며, 통합으로 가는 과정 중 완전한 분리와 완전한 통합을 제외한 모든 단계의 뜻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정미라 외, 2009, p.30), 만 3-6세 유아의 경우 초등학교 과정 중 제 1기에 해당하는 취학 전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준비 과정인 조기교육의 정책적 개념이다. 따라서 유아원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으로 접근하고 준국가기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며 전국가족수당기금(CNAF: Caisse National d'Allocations Familiales)에서 관할한다. 또한 CNAF는 가족수당지급처(CAF: Caisse d'allocation familiale)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보육시설을 건립, 운영하게 한다(정미라 외, 2009, p.52). 보육기관의 관할부서는 노동. 사회. 가정. 연대 및 도시부(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de la Solidarité et de la Ville)가 담당하며, 유아교육기관인 유아학교는 공교육체제 내의 초기 교육기관으로 교육부(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에서 관할하고 있다(MEN, 2011). 본 장에서는 프랑스 보육과 유아교육의 서비스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보육 현황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보통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아학교를 다니는 만 3세~6세의 유아를 포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아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보육교실(garderie)과 여가센터(centre de loisirs)의 경우 유아학교의 유아를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 (오전 7시~오전 8시 30분 또는 9시)과 정규 수업 후 (오후 4시 30분~오후 7시)에 취업부모를 위해 유아교사가 아닌 보육교사와 사회문화교육전문가(animateur(ice) socioculturel)들이 보육을 담당한다. 또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제 유아원이나 혼합보육기관, 아동정원, 가정유아원, 가정보육모도 보육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어 보육과 유아교육이 연령별로 이원화 체제의 특징을 지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협력 체제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능별로 부분 통합된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1〉 유형별 보육서비스 (0~6세)

보육형태	기관	대상 연령	아동 비율
시설보육 (accueil collectif)	시설유아원(crèche collective)		
	-전통/지역유아원 (crèches traditionnelles / de quartier)	0~3세	
	-직원유아원(crèches de personnel)		
	-부모협동 유아원(crèches parentales)		
	시간제유아원(haltes-garderies)	0~6세	
	아동정원(jardin d'enfant)	2~6세	32%
	혼합보육기관(établissements multi-accueil)	0~6세	
	소형유아원(mini-crèche/micro-crèche)		
	종일유아원(jardin d'éveil)	2~3세	
가정보육 (accueil familial)	가정유아원(crèche familiale)	3~6세	
개인보육 (accueil domicile)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63%
	가정보모(nounou à domicile)	0~6세	
	부모양육(parents)		5%

자료: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2007; Bailleau, 2007.

영유아 보육기관은 크게 공립과 사립, 보육유형에 따라 시설보육(accueil collectif)과 가정보육(accueil familial)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보육기관으로는 유아원(crèche), 아동정원(jardins d'enfants)⁴⁾, 시간제유아원(haltes-garderies)가 있으며, 가정보육기관으로는 가족유아원(crèches familiales)이 있다. 그 외에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을 겸하거나 정규보육과 시간제보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보육시설(etablissements multi-accueil)이 있고, 개인보육 유형으로는 등록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가정보모(nounou à domicile)가 있다(정미라 외, 2009, p.54).

각 보육기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미 선행연구(정미라 외, 2009)에

4) 만 2세에서 6세의 유아를 보육하는 정시제 보육기관이다.

서 소개된 바 있어 한국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몇 가지 기관 유형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협동 유아원(Crèches parentales)은 아동의 부모들에 의해 운영되는 유아원으로 1901년 법령에 의해 처음 조직되었으며, 3세 미만 아동의 부모들은 주중에 하루 정도 유아원에서 교육, 보육, 식사준비, 청소 등 상호 협의 하에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한다. 최대 수용인원은 20명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가족수당지급처(CAF)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혼합형 보육기관 (Etablissements multi-accueil)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여러 시설보육기관의 혼합 형태로 정규보육(crèche, jardins d'enfants)과 시간제보육(haltes-garderies)을 병행한다. 이 시설은 전통적 방식(60명)으로 운영되거나 부모협동 방식(20-25명)으로 운영된다.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을 병행하기도 하며 수용인원은 100명을 넘지 않는다.

소형유아원(Mini-crèche/micro-crèche)은 2007년 법령(décret n° 2007-206 du 20/02/2007)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이다. 3명의 전문 인력이 6세 미만의 아동을 최대 9명까지 받을 수 있다. 유아원은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안전상태가 잘 갖추어진 장소여야 한다.

종일유아원(Jardin d'éveil)⁵⁾은 보육시설의 부족현상의 대안으로 2009년 새로 제안된 보육형태이다. 가정과 영유아보육기관, 보육모와 유아학교의 중간 형태이며 아동의 전인발달과 유아학교에서의 빠른 적응을 목표로 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가정유아원(Crèches familiales)은 196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등록된 보육모들로 조직된 가정보육시설로, 보육모들은 지방정부에서 임금을 받으며, 국가보육위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보육모들은 유아들을 보육시설 같은 한 장소에 모아서 보육하는 대신 보육모 각자의 집에서 1~3명의 아동을 시간제로 보육한다. 가정유아원은 시설유아원과 마찬가지로 모자보건국(PMI)에서 관리 감독한다. 시설유아원과 독립된 보육모제도의 중간

5) 'éveil'는 '감각, 능력 등의 자각', '눈을 뜸'의 뜻으로 사용되거나 앞의 '아동정원(jardin d'enfant)'과 같은 맥락으로 만 2~3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종일유아원'으로 번역하였다.

해결책의 의미를 지니며 수용인원은 150명을 넘을 수 없다.

표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07년 말 시설보육기관은 9,129개로 2003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2.2%씩 증가했다. 혼합형태의 보육시설(Structure multi-accueil)은 계속 증가했으나 2003년부터 단순형태의 보육시설(Structure mono-accueil)인 시간제보육시설(Haltes-garderies)과 시설유아원(Crèches collectives)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만 6세미만 아동을 위한 집단보육기관과 가족보육기관의 수

단위: 개소

기관 형태	기관 수 (프랑스 본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2007	2003-2007
단순형태보육기관 (a)	5685	5666	5298	4913	4595	4350	-5,33	-6,4
시설유아원	2539	2548	2401	2277	2105	2077	-1,33	-5,0
지역 전통	2078	2114	1989	1885	1719	1731	0,70	-4,9
직원	220	209	217	206	204	164	-19,61	-5,9
부모협동	241	225	195	186	182	182	0,00	-5,2
시간제 유아원	2929	2911	2699	2449	2303	2083	-9,55	-8,0
전통	2715	2711	2555	2315	2190	1982	-9,50	-7,5
부모협동	214	200	144	134	113	101	-10,62	-15,7
아동정원	217	207	198	187	187	190	1,60	-2,1
혼합형태보육기관 (b)	2400	2712	3273	3915	4360	4779	9,61	15,2
전통	1765	2103	2716	3363	3811	4123	8,19	18,3
부모운영	430	411	349	329	311	306	-1,61	-7,1
시설/가족	205	198	208	223	238	290	21,85	10,0
시설보육 합계 (a+b)	8085	8378	8571	8827	8955	9129	1,94	2,2
가정보육 서비스 (c) (가정유아시설 제외)	921	914	875	848	842	799	-5,11	-3,3
기관합계 (a+b+c)	9006	9292	9446	9676	9797	9928	1,3	1,7

자료: Enquêtes PMI, DREES, 2009.

시설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1시간 이용 당 0.3유로-4유로까지 차등적으로 지불하며, 나머지 비용은 가족수당지급처(CAF)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파리나 대도시의

경우 시설보육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지방은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에 의한 개인보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라 외, 2009, p.60).

2) 유아교육 현황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무상으로 공교육 학제에 포함되어 있어 만 3세유아들 100% (1960년 36%)가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에 취학하고 있다.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이민자의 자녀, 장애아동을 비롯해 만 3세의 모든 유아는 그의 부모가 원하기만 하면 유아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L113-1 du code de l'éducation). 재정적 지원은 교육부가 65%, 지방정부가 35%를 분담한다(MEN, 2011). 프랑스 유아학교는 대부분이 공립학교이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비를 부담한다. 모든 유아학교는 종일반(8시 30분-16시 30분)으로 운영하며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위해 방과 후 보육교실(garderie)을 17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은 폐원하여 유아들의 특기적성, 예술, 문화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보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해 여가센터(Centre de loisirs)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학급은 만 2세반(toute petite section), 만 3세반(petite section), 만 4세반(moyenne section), 만 5세반(grande section)으로 나누어진다. 각 반은 교사 1명과 보조교사(ATSEM) 또는 보조원(Dame de service) 1명이 담당한다(MEN, 2011).

표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는 만 5세아의 경우 1970년, 만 4세아는 1980년, 만 3세아는 1994년부터 100%의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만 2세아의 취학률은 1995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 개별보육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2000년대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1989년 법에서 만 2세아의 조기학령화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조기학령화 현상은 교육투자우선지역(ZEP: Zone de l'Education Prioritaire)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해왔다. “제 2조 - 모든 아동은 만 3세부터 그의 가족이 요구한다면 거주지의 가장 가까운 유아학교나 유아반에 취학할 수 있다. 만 2세

유아들의 취학을 도시, 농촌, 산간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확대한다.” (Loi d’orientation sur l’éducation du 10 juillet 1989)⁶⁾ 한편, 만 2세아의 조기취학률은 지역적으로 큰 격차(15-90%)를 보여 프랑스 서부, 북부, 중부지방이 높다(DEP, 2003).

〈표3〉 연령별 유아학교 취학률 변화 (공립+사립)

단위: %

	2세	3세	4세	5세
1960-1961	9.9	36.0	62.6	91.4
1970-1971	17.9	61.1	87.3	100.0
1980-1981	35.7	89.9	100.0	100.0
1990-1991	35.2	98.2	100.0	99.4
1994-1995	35.5	100.0	100.0	100.0
2000-2001	35.3	100.0	100.0	100.0
2005-2006	24.5	100.0	100.0	100.0
2007-2008	20.9	100.0	100.0	100.0

자료: Statistique du Ministère, 2005와 Note d’information du MEN, N°31 de Juillet 2007을 재구성.

그러나 만 2세아의 조기학령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입학의 연령과 초등학교 초기 학업 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흥미롭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2세에 조기입학한 유아들의 경우 90.8%가 초등학교 3학년 (CE2)에 과락 없이 진급한 반면에 만 3세에 입학한 유아들은 87.7%, 만 4세 입학한 유아들은 76.6%로 만 2세 조기입학아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만 2세 조기입학아들은 1, 2학년 진급 시에도 과락의 비율이 만 3세와 4세에 입학한 유아들보다 낮았다.

6) *Article 2-* Tout enfant doit pouvoir être accueilli, à l’âge de trois ans, dans une école maternelle ou une classe enfantine, le plus près possible de son domicile, si sa famille en fait la demande. L’accueil des enfants de deux ans est étendu en priorité dans les écoles situées dans un environnement social défavorisé, que ce soit dans les zones urbaines, rurales, ou de montagne.”

〈표4〉 유아학교 입학 연령과 초등학교 학업 결과 (%)

유아학교 입학 연령	과락 없이 3학년 진급	1학년 과락	2학년 과락
2세	90.8	4.3	4.9
3세	87.7	5.4	6.9
4세 이상	76.6	11.1	10.9
합계	88.0	5.4	6.5

자료: MEN-Panel d'élèves du premier degré recruté en 1997 (1997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

한편 조기입학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는 언어능력 발달, 사회화(Le Cunff, 2005), 심화학습, 과락 없는 학업과정, 유아들이 유아원만큼 안전한 것(Forian, 2000; 2004) 등을 들 수 있다. E. Plaisance(2002)는 만 2세아의 조기입학이 초등학교 1학년(CP), 2학년(CE1) 학습 과정의 성공과 연결되며 부모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 아동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만 3세반으로 바로 입학하기보다는 연계반(classe passerelle)⁷⁾에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유아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만 2세의 조기입학은 OECD 국가 중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만 실행되고 있다.

2. 프랑스 보육정책의 변화

1968년 학생시민 운동에서 강조된 여성해방에 대한 사상과 당시 취업모의 사회진출 증가현상은 보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육아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공공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보육에 적극적인투자를 하게 되었다. 1980년대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재편과정의 실시 전까지 주로 공공 보육서비스 위주의 보편적 보육지원이 제공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별 지원과 개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4년 가족법 개정 이후부터는 보육시설에 대한

7) 'passerelle'은 '연락, 교류, 가교'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보육과 유아교육의 협력적 성격의 '가교역할을 하는 교실'이란 뜻에서 '연계반'이라 번역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설보육보다 개별보육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즉, 기존의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현금지원을 통한 비용분담으로 그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러한 개별보육으로의 재정지원정책의 변화는 보육에 대한 관심보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남성의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여성의 실업문제에 프랑스 정부는 양육수당(APE)을 지급해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아이양육을 유도하였다. 양육수당의 실수급자는 99%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조장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홍승아, 2005).

개별 지원의 일환인 현금지원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보육 유형을 살펴보면 가정내 보육수당제도(AGED)와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AFEAMA)를 들 수 있다(CAF, 2011). 시설보육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육형태는 등록보육모⁸⁾(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고용이다.

그러나 2009년 사르코지(Sarkozy N.) 정부는 기존의 개별 보육지원과는 달리 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200,000자리의 시설보육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사회활동 국가재정(FNAS)을 연 7.5%(1200만유로) 인상하고 시설보육기관을 다양화시키기로 하였다. 보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해줄 새로운 해결책으로 2008년 국회의원 타바로(Tabarot M.)는 만 2-3세 아동을 위한 종일유아원(jardin d'éveil)을 제안하고, 가족부 정무차관 모라노(Morano N.)는 2012년에 8000개의 종일유아원 신설 계획을 밝혔다(Le JDD, 2009). 종일유아원(jardin d'éveil)은 시설보육과 유아학교의 중간 형태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협력 서비스 유형에 속한다.

시설보육기관과 유아학교의 중간 형태로 기존의 보육기관과는 차별화된 보육기관에 교육의 기능을 통합한 시설보육기관의 새로운 형태인 종일유아원의 신설은 보육시설 대기 영유아 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며 아울러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적 통합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8) 등록보육모는 자신의 집에서 부모들이 의뢰한 만 3세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며 보육모가 개인자격으로 유아를 보육하는 것과 가정보육시설에 고용되어 보육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족수당지급처(CAF)로부터 소득에 따른 보육모 고용 지원수당을 받는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계속된 개별화된 보육서비스 육성으로부터 시설보육으로 정부의 보육지원 방향의 변화를 의미한다. 노르딕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OECD(2001)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된 개념에서 보육지원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프랑스 유보 이원화에서 협력으로의 과정 및 쟁점

1. 프랑스 유아교육·보육 협력 유형

프랑스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연령별로 이원화 체제의 특징을 지니기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 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유아교육기관의 보육기능 부가 형태와 보육기관의 교육기능 부가 형태의 기능별 이원화된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만 2세아의 조기입학에 대해 유아교육과 보육 양 부문에서 유아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로의 관점과 전략을 교환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부족해 다수의 보육이 가정보육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시설의 증설은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신설되는 보육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육의 기능만을 내세운 서비스가 아닌 유아교육기관으로 입학하기 전 준비단계의 특성을 보인다. 본 장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협력 서비스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5〉 유아교육-보육서비스 기능적 협력 유형

위치	기관	대상아동 연령
유아학교 외	연계장소 (Lieux passerelles)	18개월-4세
	종일유아원 (Jardin d'éveil)	2-3세
유아학교 내	연계반 (Classe passerelle)	18개월-32개월
	만 2세반 (Toute petite section)	2-3세
	보육교실 및 여가센터 (Garderie, Centre de loisirs)	3-6세

1) 연계장소 (Lieux passerelle):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 외 보육 기능 부가 형태

가족과 유아학교의 연계장소는 사회복지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가 주관한 유아기(petite enfance) 분야와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가 주관한 유아학교 분야 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성공적인 시도로 상징된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뜨거운 논쟁이 되어온 ‘만 2아세아의 조기학령화’ 찬반 대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흥미로운 서비스 형태이다.

2000년 조스팽 법(Loi Jospin, décret 2000-762 Ségolène Royal)으로 연계(passerelles) 계획은 구체화되었다. 연계의 개념은 ‘시간적(temps)’ 연계, ‘장소적(lieu)’ 연계, ‘구조적(structure)’ 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연계(Passerelle)’란 유아가 가정 밖으로 나와 첫 사회 경험을 시작할 때 부모가 동행하여 유아가 자신의 가족을 떠나 유아학교로 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체계 내에서의 전문적인 협력 형태를 지칭한다.

연계서비스는 유아원(crèche)과 같은 시설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유아를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연계장소는 보통 학교 근처의 소규모의 구조로 기능에 맞도록 시설을 변경한 아파트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반일제와 종일제로 운영되며 18개월-4세 유아 12-15명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영유아보육교사, 반일제 유아교사, 보육보조전문가 또는 유아보조교사로 구성된 팀이 유아들을 담당한다. 시나 협회에서 관리하며 학술원 교육담당관, 시장, 가족수당지급국장, 도지사 간의 협의 하에 운영된다. 연계장소는 학교의 학사운영 체계를 따라 수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오전만 운영하거나 오전, 오후 모두 운영하는 곳으로 나뉜다(Dupraz, 2005, p.1-3).

2) 연계반 (classe passerelle): 유아학교 내 보육 기능 부가 형태

연계반은 1990년 9월 교육부와 보건사회복지부의 합의규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2000년 8월 법령(decret 2000-762)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2000년에 25개 지방에 약 60여개의 연계반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정미라 외, 2009, p.89).

유아학교 내에 개설된 교실로 교육부에서 관할하며 일반적으로 유아학교 취학 전 1~9개월 정도 머무르며 반일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24개월부터 30/32개월이며 한 반의 정원은 18~20명이다. 연계반은 조기취학한 일반적으로 30~34개월의 유아들로 구성된 만 2세반과는 다르다(Decker, 2008, p.48). 경우에 따라서는 18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에 연계반은 학교(école)-유아원(crèche)-시간제유아원(halte-garderie)-모자보건국(PMI)의 연합(협력)의 기능을 시도한다. 이 협력체계는 교육적인 계획과 유아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부모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부모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포함시킨다(Plaisance, 2002, p.19).

〈표5〉 연계반 시간표의 예시 (Maternelle Victor Hugo 2006-2007)

연 계 반 (classe passerelle) 시 간 표		
시간	활동영역	활동내용
8:30-9:10	말하기, 더불어 살기, 창조적 상상력과 감각	맞이하기: 자유활동, 소그룹특별활동, 정리
9:10-9:25	말하기, 더불어 살기, 창조적 상상력과 감각	동요, 노래, 출석, 아침 프로그램, 동화 읽기
9:25-9:45	말하기, 더불어 살기, 창조적 상상력과 감각	그룹활동: 그래픽활동, 생활노트, 언어, 놀이
9:45-10:15	신체로 움직이고 표현하기, 더불어 살기	신체 움직이고 표현하기
10:15-10:30	더불어 살기	간식
10:30-10:40	말하기, 더불어 살기, 창조적 상상력과 감각	동요, 노래, 손가락 놀이, 언어, 책읽기
10:40-11:00		휴식
11:00-11:20	말하기, 더불어 살기, 창조적 상상력과 감각	그룹활동: 그래픽활동, 생활노트, 언어, 놀이
11:20-11:30	말하기 학습	자유선택활동 및 귀가준비(부모가 옷 입히기)
13:30-14:00	말하기 학습, 더불어 살기	낮잠 -자기 전 동화 들려주기, 자장가(동요)
14:00-15:50		부모와 함께: 일어나서 실외활동
15:50-16:30		간식, 정리, 귀가

자료: <http://www.crdp-strasbourg.fr>, 2011. 8. 2 인출 (유아를 위한 시간: 총 6시간)

연계반은 보육이 필요 없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며 급식(cantine)을 지급하지 않고, 보육교실도 운영하지 않는다. 이 교실은 가정과 아동의

보육기능을 갖춘 유아학교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9월에 연계반에 들어와 다음 해 4월에 만 2세반(TPS)으로 입학할 수 있다. 교사 1인당 유아의 수는 시설유아원(crèche)과 같은 8명이다. 일반적으로 한 반에 영유아보육교사(éducateur de jeunes enfants)와 유아보조교사(ATSEM)가 16명 이상의 유아를 담당한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급식이 없다. 유아들은 부모와 함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다시 연계반으로 돌아와 낮잠을 잔 후 오후 시간은 부모와 함께 활동을 한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은 영아들의 경우 유아원에서 지내며 공동생활을 통한 사회성을 기르게 되지만 일찍부터 부모와 떨어져 느끼게 되는 분리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충격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 2세의 조기학령화에 대해 반대하는 학자들(Zazzo, 1984; Florin, 1998)은 심리적인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인 분리를 위해 충분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성인이 되어 사회성과 대인관계, 자율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연계반은 유아들에게 유아학교 입학 전 부모와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서비스라 할 수 있다. 8주 동안 주당 2시간씩 엄마와 유아를 함께 참가하도록 하여 그룹 당 6쌍의 엄마-유아가 적응의 시간을 갖도록 정해져 있다.

연계장소(lieux passerelles)와 연계반(classe passerelle)의 목적은 첫째, 유아로 하여금 그의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학교생활을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이민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많은 프랑스의 특징 때문에 부모와 학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즉, 부모와 유아의 동행은 보육시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부모와 유아일 경우 더 필요한 부분이다(Dupraz, 2005, p.5).

3) 만 2세반 (toute petite section) : 유아학교 내 보육 기능 부가 형태

1989년 법(Loi d'orientation sur l'éducation)에서 열악한 지역인 교육투자우선지역(ZEP)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아학교 내의 만 2세반이다.

만 2세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2세와 만 3세 유아들을 한 반(TPS-PS)⁹⁾에 같이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학급은 공동침실(dortoir)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신체활동이 가능한 추가 공간이 함께 구성된다. 수업은 인지발달을 위한 통합적 놀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 등 언어교육과 그래픽활동에 중점을 둔다.

반의 구성은 20명의 유아 중 만 3세아(petite section) 15명, 만 2세아(toute petite section) 5명 정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급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 활동에 올 수 있으며, 오전 수업만 원하는 경우에는 반일제로 참여가 가능하다. 특별히 만 2세반이 구성되지 않은 유아학교도 만 3세반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만 2세아들을 수용하고 있다.

만 2세반은 부족한 보육시설의 대안으로 조기입학제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보육과 교육을 겸한¹⁰⁾ 가정과 학교를 연결시키는 즉, 부모와 교사 간의 규칙적이고 활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기 전 서서히 준비할 수 있는 유보 통합 유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4) 보육교실 및 여가센터 (garderie/centre de loisirs): 유아학교 내 보육 기능 부가 형태

취업부모를 위해 유아학교 정규 수업 전 (오전 7시~오전 8시 30분 또는 9시)과 정규 수업 후 (오후 4시 30분~오후 7시)에 유아교사가 아닌 보육교사와 사회문화교육전문가(animateur(ice) socioculturel)들이 보육을 담당한다. 또한 유아학교의 수업이 없는 수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이다. 정규 수업 이외의 보육서비스는 보육업무를 주관하는 행정부서인 사회복지부(Ministère des affaires

9) Toute petite section-Petite section

10) 유아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으로 만 3세아들은 기저귀를 떼고 배변훈련이 되어 있으며 우유가 아닌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만 2세아들과는 다르게 보육의 개념보다는 교육이 가능한 연령으로 구분하였다.

sociales)와 시(commune)에서 담당하며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 종일유아원(jardin d'éveil): 유아학교 외 교육 기능 부가 형태

2008년에 제안된 새로운 보육형태로 가정, 유아원(crèche) 또는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와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 아동정원(jardin d'enfant)의 매개체적 구조의 특성을 가진다. 만 2-3세 유아를 위한 유보 협력 서비스인 종일유아원은 보육대상 연령의 유아들에게 교육적 기능을 부가한 점에서 만 2세아 조기교육과 보육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만 2-3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원(crèche)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유아들에게 교육적인 활동을 부가한 신개념의 보육서비스이다. 유아들의 교육적 활동이 첨부되었으나 유아학교와 비교해 자유로운 놀이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종일유아원은 유아의 보살핌, 발달, 자각과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하며 다른 보육시설들과 협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CNAF, 2009, p.2).

최소한 1년에 200일 이상, 오전 7시 30분(또는 8시)부터 오후 6시 30분(또는 7시)까지 운영하며 유아의 구성은 유아원(교사 1인당 유아 8명)과 유아학교(교사 1인당 유아 15명)의 중간으로 교사 1인당 8-12명의 유아로 구성된 2개 반을 운영한다(CNAF, 2009, p.3). 그러나 유아학교의 만 2세반이 무상인 것과 달리 종일유아원은 유아원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재정지원은 주로 가족수당기금처(CAF), 시(commune), 도의회에서 관할한다. 월 20일 출석 할 경우 최저생계비1급 가정은 월 42,50유로, 3급 가정은 127유로, 4급가정은 178유로를 보육료로 지출하며 잔여금액은 CAF가 지원한다(CAF, 2011).

영유아교사(EJE)와 보육전문가, 간호사, 정신운동 훈련사, 준보육전문가가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CNAF, 2009, p.5). 종일유아원의 취지가 부족한 보육시설의 대안으로 보육 수용인원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프랑스 유아교육·보육 협력의 쟁점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의 위기를 국가적 유아교육, 보육정책으로 극복했고, 그 결과 현재 유럽국가 중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육아 선진국이 되었다. 보육과 유아교육이 연령별로 이원화된 체제로 주무기관도 이원화되어 있지만 기능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부족한 보육시설의 대안으로 만 2세아의 조기입학제도,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의 중개역할을 하는 연계(*passerelle*)시설의 사례는 교육과 보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연령별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이 야기되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무상교육 체제 확립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만3-5세 유아라면 누구든지 무상으로 유아학교 교육을 수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즉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기본 학제 속에 포함되어 있어 유아학교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에서 만 3세 이상의 두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률은 1990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교 취원율이 100%라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프랑스의 유아 무상교육정책은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한 경험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7%가 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다닌 경험이 없는 기혼여성들을 제외한다면 이 같은 퇴직경험률은 무려 51.8%에 달한다. 퇴직을 경험한 여성의 47.2%는 퇴직 사유로 자녀양육을 들었다(김혜영, 선보영, 김상돈, 2010, p.173). 또한 한국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을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3세(22.9%), 4세(41.4%), 5세(52.9%)로 나타나(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p.76) 프랑스 유아학교 취원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OECD 국가 평균 3-5세 취원율이 90%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이후의 정규교육과정 우선으로 유아교육을 소홀히 다루어 왔다. 2008년도 교육예산 약 31조원 가운데 유아교육 예산은 2,171억 원으로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p.81). 반면에 프랑스는 국가 전체 예산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 (2004년 기준)에 이르며 그 중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대한 교육비 비율이 26.3%이다(이화도, Vergnaud, 2007). 세계적인 유아교육 보편화 추세에서 유아교육비 부담을 가정이 아닌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국가적 재정지원 및 예산확충 면에서 실수요자인 유아의 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을 국가 중심체제로 전환해 공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천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해 교육의 내용과 질을 통일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국가수준의 ‘유아 학교’로 인정한 셈이다(서문희 외, 2011). 만 5세 공통과정은 만 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초등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유아교육기관이 초등교육의 준비과정 학습을 넘어 초등과정을 선행학습 하고, 초등 1학년 과정 교육프로그램이 이미 유치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학습의욕을 떨어뜨릴 정도의 상황에서 만 5세 공교육이 유치원 교육비는 줄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유아기의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소리도 들린다.

또한 만 5세 어린이의 교육·보육 지원금을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금이 실제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을 보편적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하긴 했지만 아직 무상교육으로의 길은 멀기만 하다. 3-5세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교육과정으로 유아기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질 높은 공통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하여 교육 수혜자인 유아와 부모 모두의 입장에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효율적인 무상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와 보육 유형의 다양화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국가가 교육비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모든 유아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만 2세 유아들 중 조기교육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나 이민자들의 자녀는 유아학교 취학을 보장하고 있으며, 만 3세 미만의 취업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지원에 재정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정미라 외, 2009, p.98). 즉 프랑스에서 태어난 유아는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의 책임 안에서 자란다.

프랑스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적인 확충과 함께 보육유형을 다양화 시킴으로써 보육의 기회와 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주었다. 부모협동 유아원, 혼합형 보육시설, 종일유아원, 소형유아원 등 프랑스의 보육 유형의 다양화와 모든 보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프랑스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민간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 등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보육시설은 전체 시설의 10%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민간개인보육시설이 37.8%이고 가정보육시설이 48.8%로 민간시설이 86.6%에 이르고 있다(서문희, 2011, p.7).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교육 예산은 2009년 교육부 예산의 1.61% 수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p.81)으로 선진국의 교육예산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예산 중 유아교육 예산 비율은 프랑스 11.5%, OECD 평균 7% 정도으로써, 초등교육 예산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립 시설에도 공립 시설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임재택, 2002, p. 44). 프랑스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집단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일 외에도 임시보육시설이나 유보 협력시설 등을 확립하여 국가가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파트너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관중심 형태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부분별 기능적 통합) 모형 구축

프랑스는 영유아의 연령별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분리된 체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체제를 유지하면서 여건에 따라 부분별, 기능적 통합과 협력으로 다양한 유형의 부분 통합 정책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에 대해 OECD(2006)가 제안한 정책과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협력적인 정책구조, 주무부처의 지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개혁을 위한 합리적이고 참여적인 접근,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 현장, 전문가, 부모의 연계이다. 프랑스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아학교로 이원적인 형태를 취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체제이며, 보육과 유아교육의 각 부처 간의 강한 연계와 합동현직교육과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는 교육과 보육 두 부분의 분절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옥 외, 2006, p. 63-64).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돌봄(care)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과 교육(education)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정책으로 볼 수도, 교육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유아교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에서 맡고 있고, 이들을 관할하는 주무부처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양분화 되어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시설로 규정되어있어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이 생기며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체계나 협력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유치원 내의 보육 부가 기능 형태로 정규 유치원 수업 시작 전(7:00-9:00)과 수업이 끝난 후(4:30-7:00 또는 7:30)에 운영되는 보육교실과 같은 부분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규 유치원 수업은 유아교사가 보육교실은 보육교사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교사가 정규 수업과 종일반까지 운영함으로써 영유아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근무 시간으로 인해 소홀해지는 보육과 교육의 질을 양질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수가 매우 적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종일반이 오후 4시 정도에 마치므로 그 이후의 시간동안 보육교실 연계가 필요하다. 5세 공교육을 시작으로 3-5세 유아의 공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되게 되면 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 체계가 필요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주무기관과 관련법이 다를 뿐 기능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제도를 ‘유아학교’로 통합하여 공교육으로 전환하여 사교육비를 줄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무부처의 통합으로 불필요한 혼선과 재정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정미라 외, 2007).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사례처럼 단시간의 교육개혁으로서 전체적인 일원화 통합이 아닌 유아학교 내의 연계반이나 만 2세반, 여가센터, 보육교실 등의 부분별 기능적 협력체계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추락하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보육지원확대 방안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사교육비 부담과 보육시설 부족 등 출산을 실행하는 데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선진국의 보육과 유아교육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선진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협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상의 프랑스 유아교육, 보육 현황과 정책의 변화, 유보 협력의 사례 유형 및 쟁점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는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기본 학제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무상으로 지원됨에 따라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평생교육의 틀 안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5세 누리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국가수준의 유아학교로 통합하여 만 5세 유아들의 의무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공통과정 운영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3-5시간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어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기관 편의에 의해 공통과정을 최소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서문희 외, 2011)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3시간의 누리과정 운영 이후 나머지 시간을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경우 1일 12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5세 누리과정’ 이후의 보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프랑스의 유보 협력 사례에서처럼 유아학교 내 보육기능을 부가한 보육교실이나 여가센터를 두어 누리과정 수업 이후의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5세 누리과정 유아교사 외의 보육교사와의 협력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랑스는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중앙집중적체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정무부처가 다르지만 대상 유아의 연령에 따라 구분되므로 관리 감독의 대상이나 내용의 중복은 없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학교 외 보육기능 부가 형태인 연계장소는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부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대립을 해결하는 성공적인 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능이 유사해져 감에 따라 두 시설의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통합 일원화를 주장하는 유아교육계와 기능과 성격이 다른 두 시설의 일원화는 무리라고 보는 보육계의 갈등이 있었다. 또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대상 아동의 연령이 중복됨에 따라 관리 감독의 대상과 내용의 중복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대상 연령으로 구분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할하는 부처간의 협력 및 전달체계의 이원화에 따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프랑스의 유아교육 보육 협력 사례는 단시간의 교육개혁으로서 전체적인 일원화 통합이 아닌 부분별 기능적 협력체계라는 특징을 가진다. 5세 누리과정에 대해 만 5세가 다니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기준은 만 5세아가 1명 이상 다니는 경우 5세 누리과정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서문희 외, 2011). 그러나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3, 4, 5세 연령 혼합반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령 혼합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5세 누리과정 적용 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영유아 혼합반의 경우, 영유아의 발달적 차이로 연령에 적합한 교육,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추가 교사지원이 필요하다. 5세 누리과정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통합으로 단계적으로 3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시간의 교육개혁으로 전체적 일원화 통합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사례처럼 부분별 기능적 통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김혜영 · 선보영 · 김상돈(2010). 영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18.
- 나정 · 문무경 · 심은희(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OECD의 관점, 한국교육개발원.
- 남윤인순(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33차 여성정책포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pp.8-21.
- 문무경 · 이운진 · 이세원(2007).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2007-1.
- 박창현 · 박선영 · 김영주 · 윤경옥(2010). 스웨덴의 영유아보육 통합이 한국 영유아정책에 주는 함의: 스웨덴 유아학교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제14권 제4호, pp.69-90.
- 서문희 · 김미숙 · 박세경 · 최은영 · 임정기(2004).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4.
- 서문희(2011). 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지원 현황과 과제, 육아정책포럼, 22, pp.6-18.
- 서문희 · 장명림 · 문무경 · 양미선(2011). 만 5세 공통과정 시행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1-03.
- 송승민(2006). 프랑스와 한국의 보육 체계 비교: 보육 정책과 보육료 지원을 기준으로. EU학 연구, 제11권 제1호, pp.3-27.
- 신나리. 김은설(2006). 일본과 싱가포르의 유아교육. 보육통합사례. 육아정책포럼, 2006-2.
- 이화도, Vergnaud, G.(2006). 유아교육 학제개편 방향성 정립을 위한 프랑스 유아교육제도 이해, 유아교육연구, 제26권 제4호, pp.5-29.
- 유희정 · 김은설 ·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2006-2.
- 유희정 · 이미화 · 장명림 · 김은설 · 김은영 · 송신영(2008). 유치원과 보육

- 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 보고서, 2008-09.
- 이옥 · 김은설 · 신나리 · 문무경 · 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2006-1.
- 임재택(2002). 유아교육의 현실과 개혁방안, 교육개발, 제133호, pp.40-45.
- 정미라 · 나정 · 박은혜 · 하봉운(2007).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정미라 · 조희연 · 안재진(2009). 프랑스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정재각(2004).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보육정책과 문화-가정과 노동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유럽행정학회보, 제1권 제1호, pp.97-122.
- 조정신 · 황성원(2004). 프랑스 영유아보육체제가 한국의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영유아보육학, 제36집, pp.45-72.
-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69호, pp.139-173.
- Bailleur, G.(2007). "L'accueil collectif et en crèches familiales des enfants de moins de 6 ans en 2005" Etudes et résultats, n°548, janvier, Drees.
- Bailleur, G.(2009). "L'offre d'accueil collectif des enfants de moins de 6 ans en 2007" Etudes et résultats, n° 681, février, Drees.
- Bouysse, V.(2007). "Quelle identité pédagogique pour l'école maternelle?", Le colloque "l'école maternelle a de l'avenir", Paris.
- Caille, P.(2001). "Scolarisation à 2 ans et réussite de la carrière scolaire au début de l'école élémentaire", Education et formations, n° 6.
- CNAF(2009). "Méthodologie des jardins d'éveil" in Diversification l'accueil des enfants, développons le soutien aux familles, Lettre circulaire n° 2009-076, pp.1-13, <http://www.travail-emploi-sante.gouv.fr>
- CNAR(2009). L'offre d'accueil collectif des enfants de moins de six ans, Uniopss-Uriopss.

- Decker, V.(2008). "La classe passerelle", Le Nouvel Educateur, n° 187, pp.48-49.
- DEP(2003). "Faut-il développer la scolarisation à deux ans?", Education et formations, n° 66.
- DEPP(2006). Repère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Note d'information n° 129.
- Deschaux, J. & Dessus, P.(2009). L'école maternelle en France, IUFM Grenoble.
- DREES(2007). Enquete: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
- DREES(2009). Enquêtes PMI.
- Dupraz, L.(1995). Le temps d'apprivoiser l'école : lieux et actions-passerelles entre les familles et l'école maternelle. Paris : Fondation de France, (Cahiers, n° 9).
- Dupraz, L.(2005). Passerelles, vous avez dit passerelles?, colloque "Le passerelles...Des passe-âge", Brest.
- Fagani, J.(2003). Supporting Working Parents in France: Is Family Policy at a Turning Point?,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Population) 1(1).
- Florin, A.(1998), article dans *Maternelle offre avenir*, Actes du SNUIPP.
- Florin, A.(2000). *La scolarisation à 2 ans et autres modes d'accueil*. Paris: INRP.
- Florin, A.(2004). Les modes de gardes à deux ans. Qu'en dit la recherche?, PIREF.
- Le Cunff, C.(2005). Ecoliers à deux ans en France, Education et francophonie, 33(2).
- MEN (2005). Statistiques du Ministère : Document "Repères, Références et Statistiques sur les enseignements, la formation et la recherche".
- OECD(2001). Starting Strong. Paris: Author.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Paris: Author.

OECD(2011a).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2011b). Family Database.

Plaisance, E.(2002). "Les tout-petits à l'école: Des passerelles pour un meilleur accueil", in *Les ZEP et les REP*, Viviers d'innovation, CNDP, p.19.

Villain, D. & Gossot, B.(2000). *Rapport sur les dispositifs passerelles: de la famille et du lieu de garde à l'école maternelle*, n° 153, IGAS-IGEN.

Zazzo, B.(1984). *L'école maternelle à deux ans, oui ou non?*, Paris: Stock.

신문기사

문화일보(2009). 스웨덴 등 유아교육 투자 뒤 출산율 급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01201030827026004> (2009. 10. 12)

한겨레(2010). 보육시설 95% 사설 ... 돈 없는 부모는 괴로워, <http://www.hani.co.kr> (2010. 2. 22)

프레시안(2009). 한국, 저출산 관련 재정지출 OECD국가 중 '꼴찌', <http://www.pressian.com> (2009. 11. 20)

아시아투데이(2011). 저출산 사회 극복한 프랑스는 어떻게?, <http://www.asiatoday.co.kr> (2011. 2. 1)

Le JDD(2009). Morano: Nous allons créer 100,000 places de crèche, <http://www.lejdd.fr> (2009. 4. 4)

Le Monde(2009). Les jardins d'éveil seront payants: Des jardins d'éveil pour les 2-3ans, <http://www.lemonde.fr> (2009. 5. 14).

L'Express(2009). Pourquoi la France affiche un taux de natalité si élevé, <http://lexpansion.lexpress.fr/economie> (2009. 8. 26)

Libération(2008). Des crèches ouvertes le dimanche?, <http://www.liberation.fr> (2008. 10. 14)

TF1 News(2010). Natalité : la France toujours en tête, <http://lci.tf1.fr> (2010. 1. 19)

통계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2010

통계청 <http://www.kostat.go.kr>

CAF <http://www.caf.fr>

INSEE <http://insee.fr>

MEN, <http://www.education.gouv.fr>

OECD <http://www.oecd.org>

Abstract

The Study of Low Fertility and Case of Cooper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n France

Cho Hee-yeon*

The development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nursery schools in France has two main objectives: to assist parents who are economically active, and to give all children equal opportunities, irrespective of their social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functional integration and the plan of cooperation practices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n France. Since the late 1990's, the policy attempts for th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was built unifi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ystem through various partial integration policy in many countries. In France, the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separated by age but indicate the nature of functional integration in some cases, as the gateway class (classe passerelle), class tiny section(TPS) for children 2 years, recreation center and class nursery in kindergarten. Finally this study points to some implications for the pending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care and kindergarten and for the reorganization in Korea's public education system.

Key words: low fertility, cooper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n France, public education, public childcare.

* Professor, Han-Yang Cyber University (frjhy@hycu.ac.kr)

